

아리슬: 마무리

ARYSLE: ACE

許基承

두 여우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다. 여인은 각각 맥을 짚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이 잠결에 암컷이 제 몸이 더워 옷을 하나씩 벗어냈다. 한설은 서둘러 흘러내리는 옷을 들어 맨살을 가리려 하였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가만히 두십시오. 그 여우는 여인의 옷이 매우 더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두 여우는 전에 종소리에 휘말려 영과 혼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수컷이 아리님이고, 이 암컷이 스리입니다. 그릇도 안 되는 것들이 제가 따르던 스승이 없어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아이는 제 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도 역시 그릇에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설은 말을 잊지 못했다. 한설은 자신의 보드라운 살을 본능적으로 염탐하는 암컷여우의 손을 빠르게 뿌리쳤다. 한설은 심호흡하였다.

“어찌해야 합니까.”

“시술해야 합니다. 수컷은 아리님이니 다시 아리님의 얼굴과 몸으로 돌려놓는 것이고……. 이 암컷은 스리이니 저의 손님이 아닙니다.”

여인과 한설 사이에 어두운 침묵이 맴돌았다. 한설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반대로 수컷으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이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마련해드리지요.”

“저의 집에선 한 분만 치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이 꽤 외진 곳이라 다른 곳에 가려면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그릇으로는 또 한 번 그 세월을 버티라기엔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설은 깨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냘픈 몸을 가진 두 여우를 내려다보았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게다가 몸을 돌린다고 하여도 둔갑시키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남정네의 몸을 가위질한다고 하여도 이전 아리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뚱이로 겨우 살아갈 수 있긴 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암컷의 손이 결국 한설의 팔목을 강하게 잡았다. 한설은 아리의 몸을 한 스리를 내려다보았다. 스리는 천천히 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둘이 다 죽는 것보다 내 혼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 스리는 제 열에 못 이겨 다시 눈을 감았다. 한설은 스리의 말에 더 어떤 것도 연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한설은 스리를 업고 방에서 나왔다. 여인은 수컷여우 얼굴에 천천히 여러 개의 침을 박아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던 암컷 여우,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아리의 모습을 떠올려 가위질을 시작하였다.

스리를 돌보고 있는 한설의 방에 여인이 들어왔다.

“우선 시술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스리님은 점점 이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말을 잊지 못했다. 한설이 입을 열었다.

“……. 아무래도 영감님께서 이곳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마을에 있던 선과 악에 관련된 열매를 모두 다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아리님도 더는 ‘아리’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원래 새로 딸아이를 보게 되면 불일 이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망할 ‘련(蓮)’이라 이름 붙이셨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개 중에는 여러 별이 모여 세간에 소식을 전하는 장치라 들었었다. 더하여 어떠한 덩치 큰 정기선(Liner)의 이름을 따, 별차(Stelliner)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들었다.

스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련은 서둘러 바다가 보이는 절벽으로 향했다. 련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스리는 먼바다를 보며 가만히 서있었다. 련은 한설에게 부축받으며 겨우 스리에게까지 걸어갔다. 련은 스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거의 빼만 남은 것 같이 창백하면서 앙상하였다. 련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련은 스리를 안아주려 하였다. 한설이 련의 몸을 붙잡았다.

“지금 스리님에게 강한 힘을 가하면 그대로 날아가십니다. 자중하십시오, 아리님.”

“이 망할 것아! 넌 왜 날 ‘아리’라 부르는 것이냐! 이거 놔라!”

“아리님, 제 돌돌이와 돌순이를 드리겠습니다.”

스리의 힘없는 말 그리고 그토록 아끼던 복합연산기(Computer) 돌돌이와 돌순이를 내어준다는 말에 련은 스라리를 느꼈다.

“그리고 한설에게 돌돌이와 돌순이를 만들었던 경험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리하면 새 것 역시 아리님 손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련은 눈물을 흘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는지 떨리는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 수 있었다.

“여기 튼튼한 차입니다. 아리님께선 안정적인 걸 원하십니다. 하여 이 나라의 수도가 매년 물에 잠겨 물에서도 튼튼한 차를 준비해두었습니다. 다만, 소문을 보자 하니 시원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색깔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예쁘게 생겼구나. 흠, 그래도 이 나라의 누군가가 이 차를 가지고 광고해보면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괜찮겠지만 아리님은 같이 있기만 하여도 기계가 갑자기 살아나고 오래가지 않습니까? 저번에 밤바다로 여행을 갔을 때 놀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완전히 방전되어 켜지지 않아 여태 난처했던 것을 같이 타기만 했는데 휴대전화를 깨우지 않았습니까. 이 차도 그리 될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실은 그 충전 좀 해보겠다고 뭘 짓을 해대는지 안쓰러웠었다. 그런데 마침 다 도착할 때쯤 불이 들어와 다행이라 여겼다. 나는 그래도 현금을 냈는데, 싸게 쳐 줘서 고마웠었다. 크흠, 그건 그렇고 내 어느 정도는 편해졌다지만, 아무래도 이 남정네 같은 몸뚱이는 가지고 살 자신이 없다.”

“정말 이것까지 얘기가 된다면 저와 아리님 모두에게 심각한 상황이 닥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미리 알았던 것이냐?”

“알았던 것은 아니고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리님이 제 몸에 간힐 것 같아 미리 씨앗을 먼 나라의 은행나무에 묻혀두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어디 내보일 간판은 없었지만 아리슬을 일으켰던 글로 ‘꿈을 이룬 자’가 되어보니, 그곳에서 제 씨앗을 받아주긴 했었습니다.”

“그 씨앗은 누구에게 갔느냐? 임자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몸에는 없는 것이냐?”

“곧 시술받으실 겁니다. 하여 그 씨앗을 담은 것을 없앨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내 이것 때문에 다리가 오프라들지가 않는다. 영 불편하구나.”

“그리고 씨앗은 암술과 수술이 만나도 병이 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

을 딱 2회분만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 은행정책에 따라 저를 알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몸뚱이 아리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에 그 자식, 그 부모의 연결자에 불과한 저의 사례금 금피 몇 개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씨앗 제공자의 사례금이겠구나. 그건 내가 스리님의 뜻에 따라 실수하지도 주책맞게 더 얹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겠다.”

“제가 그 은행을 선택한 것이 '우생학'인가에 대해 심히 고민해보았으나, 애초에 병 때문에 열매를 맺지도 못할 자들이라 가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씨앗을 무작위로 섞고 그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면, 우성과 열성의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 이리 일을 꾸며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면 사회적인 것과 생물적인 것을 모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씨앗 제공자인 저도 완전한 '우성'은 아닙니다. 지금 아리님이 섞인 엄연한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릇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슬을 겪었던 이야기를 정녕 보이는 것이냐.”

“네, 그리고 아리님. 아리슬을 한 번 더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스리님 그건 아니 됩니다. 치료받지 못한 몸으로 아리슬을 일으켰다간…….”

“한설아, 난 어찌 되는지 잘 알고 있다. …… 내 오랜 세월, 이 작고 아담한 머리, 체구가 남자치고는 보편적인 여자만큼이나 작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마저 여자만큼 조마난 것이 말 수도 없어서 늘 어디서든 놀림 받고 만짐을 당하였습니다.”

“……. 대체 누가 우리 스리를 건들었느냐! 내 이 아리가……!”

스리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장 큰 건 역시 이 망할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사내새끼라면 딱 세 번만 울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것을 배움과 동시에 여자가 된 것입니다.”

련은 고개를 저었다. 흠어져가는 스리를 보며 더 안아줄 수도 없었다.

“만약 저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이 눈물에 대해 이렇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눈물은 인생에서 4번이면 충분하더구나. 네가 태어났을 때, 큰 슬픔을 나눴을 때, 큰 기쁨을 나눴을 때, 그리고 네 능력, '너'라는 꽃이 피어났을 때. 이외의 곳에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인다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는 자라 여겨져 업신여김당할 것이다. 눈물을 최대한 참아 보거라. 정녕 눈물이 마렵거든 아예 자리를 뜨거나, 고개를 숙이거라.’

“이 말은 만약 딸이 생긴다면 똑같이 전해줄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 슬픔과 기쁨, 그리고 피어나는 것은 사내와 여인 모두의 것인 것 같습니다.”

련은 제 입을 가렸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수십 번 저었다. 련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눈물이 많아서 그렇다.”

“괜찮습니다. 많은 여자가 찾아왔지만 아리님은 근래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리님과 연이 일찍 닿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거기에 특히 집안 꼴을 보니 제 집 부모님은 ‘첫 아이는 꼭 ‘남자’이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제가 그 얼굴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할지언정 그 여린 부분을 차마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야기를 꺼내 보는 것이 부모님이 마치 다시 태어나신 것처럼 바뀌어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남자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습니다.”

“…….”

“저는 저를 만졌던 이들, 제 부모님까지 모두 용서하였습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의 정신을 봐주신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이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연을 맺었던 모두가 아무 잘못이 없게 됩니다. 저는 대를 위해 소를 버리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을 아리님께 바치려 합니다.”

“그럼 근래 역병이 돌 동안 보인 긍정적인 모습,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대체 무엇이더냐.”

“아리슬을 겪으며 배웠던 아리님의 심정과 말투를 흉내 낸 것뿐입니다. 이제는 제 선생님 이십니다. 아니, 모든 암컷, 여성, 여자가 전부 선생님입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이렇게 인정 하니 정신 상담이 빨라지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니 그냥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뿐이구나.”

“이번에 아리슬을 일으키면 아리님이 또 이 남정네의 몸을 가지실 것 같아 미리 몇 가지를 더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종(Vell)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행은 입마개(Mask)만 쓰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간은 거꾸로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는 것은 그 얼굴만 보여지지 않으면 집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하여, 진정한 보안(Security)은 현실에서 막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란 것이 아무리 답이라 하여도 인간의 입장에선 ‘불확실’한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여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용되고 남용되고 끝으로 악용되었을 때, 주도자는 그 불확실함에 숨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였던 것 같구나. 그런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저런 놀이를 만들다가 사람들이 만든 놀이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지어 제 졸업논문은 놀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안’에 관한 것입니다. …… 대책은 그 결과값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추릴 수 있는 면허체계가 절실하고, 사회에 대한 배포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공지능의 배포 양을 줄이라는 것이지 값을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충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늘 그렇지 않느냐. 여태 무언가 개발되고, 제작되고, 발견되었다는 건 ‘너의 세금이 올라갑니다.’와 같은 말이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또 세상을 보면 또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맞다. 늘 대전쟁의 시작은 비교적 작은 무기였고, 그 끝은 압도적인 무기가 아니었느냐. 그 수많은 죽음으로 개발이 되긴 하니 그 일을 벌이는 것 아니겠느냐.”

“허나 이 인공지능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가도 전혀 예상 못할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기에 스러진 죽음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개발을 맞볼 사람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개발, 진보는 해야 하지 않느냐? 좋은 수가 있느냐?”

“이 세계에 아름다운 나라(美國)가 써준 역사를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굳이 모든 것이 아닌 딱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해 그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주어도 화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 그 역사를 본 적이 있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란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같다. 물론, 그때까지 독립을 외치는 이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기회를 잡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였다. 아무튼, 네가 생각하는 건 큰불을 미리 보여주어 더 큰불을 막는 셈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점을 본받아 저는 한번 제 이야기 속에서, 제 놀이 속에서 안전하게 그 큰불을 그려보았습니다. 허나 아리님이 받으신 그 남정네 몸은 이제 예비군 8년 차입니다. 나라가 부르면 가야 할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나라가 준 무기를 어떤 정신으로 들고 다녔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말이더냐?”

“어…….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다 떨어질 때까지 주적을 향해 총을 쏘면 됩니다.”

“알겠다. 나라의 것은 나라에게 영감님의 것은 영감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과 같구나.”

“이 이야기는 이쯤하고 제가 미리 봐두었습니다. 외부 연결망 인터넷 속에서 하얀 장미란 이름의 여러 사진을 보니 아리님과 참 많이 닮아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보여주면서 아리님에게 주어진 이름 '련(蓮)'처럼만 해달라 하면 대충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세계에서 그런 얼굴을 했다간 누군가는 큰 화를 입지 않겠느냐.”

“저도 그럴 것 같았으나 얼굴을 잘 고치는 그 나라를 보아하니 팬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보이느냐?”

“간판 제목엔 대(大) 자를 적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작은(小)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값비싼 보석 같은 것도 나지 않으니 돈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작품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과 작품이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름 무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젠 자신들이 문화라는 것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가르치고 살아가는지 전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리님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 살아왔는지 제가 아리슬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아리님의 새 얼굴의 기본이 될 그 '하얀 장미'라는 것까지 모두 공개할 것이고 아리님은 어떤 시술인지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알보다 알을 낳는 녀석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심지어 어떻게 알을 낳는지까지. 하긴 녀석과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 그 무시무시한 힘과 재력으로 적당히 사람을 굴려 그 나라에서 똑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유가 있느냐?”

“아리님이 믿는 종교에서 가르침을 조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종교는 '남(Male)'과 '여(Female)'만 언급하고 그 균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을 지극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영과 육신의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면 남자의 육신과 영을, 여자일 땐 여자의 육신과 영을 가집니다. 허나 간혹 육신 혹은 정신의 사고가 생겨 남자의 육신에 여자의 영이 담길 수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자의 육신과 영을 가진 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남자의 속성이 세 개, 여자의 속성이 하나, 반대면 여자의 속성이 세 개, 남자의 속성이 하나. 즉,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아리님은 이미 아무리 육신을 뜯어고친다고 하여도, 어미 세포가 남자입니다. 허나 영은 아리님, 여자입니다. 이것만으로 균형이 잡힌 상황입니다. 진정 이런 상태라면 독신이어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때 다른 관계를 맺을 때, 스스로 균형이 무너져 자멸할 수 있습니다.”

“흠, 그 말대로라면 동성을 나누는 이들도 정작 자신들이 무슨 성을 원하는지 혼란할 수 있겠구나. 결국 누군가는 혼자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잠깐, 이미 혼자 사는 이들이 있지 않

으나.”

“그들은 이미 그 삶을 버터널 그릇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릇이 안 돼 이 지경이 된 저희는 조금은 다른 것을 찾아보아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 이런 몸뚱이를 받아줄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을 꾸미고 감행하여도 굳이 돌을 던지는 이가 있다면, 그냥 맞으십시오. 이미 아리슬이 일어난 시점에서 아리님과 저는 서로 섞여버린 몸, 죄인입니다. 팬찮습니다. 아리님께서 따르는 분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혹 심판 받는 게 두려우십니까?”

“내 그 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역병을 고쳐보겠다고 서슴없이 그이에게 손을 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볼 때 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다.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치료 안 해줄 거야?' 나도 그런 믿음을 배우고 싶다.”

드디어 스리와 아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마지막이 될 아리슬을 말없이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확실히 처음보단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어색한 분위기에 스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 글을 계속 쓰시려면 아무런 선택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때 글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덕분에 이전에 보수단체의 나라 분들이 ‘역병관리청’이란 이름을 세운 것이 보이더구나. 그 이름을 공부해 안 것이 있다. ‘보건복지의 보(保)’자와 ‘보수의 보(保)’자가 같은 것이 말이다. 허나 상황도 워낙 급했던 나머지 이름을 짓다 너무 서두른 것 같다. 옆 동네 ‘기상청’보다 음이 길다. 적절히 음을 지우다 보니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병리청(病理廳)’이 나은 것 같다. 그리고 부디 이다음에 고속도로나 운하를 뚫은 진보단체의 나라 분들이 다음 기술처럼 보이는 그 ‘IT기술’이란 것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Democracy)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라 사람들은 다 국민(People)입니다. 그럼 그 국민의 나라에서는 국민에 의한 나라 사람들을 뽑을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보수나 진보를 집행하겠지. 다만, 여기서도 헛갈리는 부분이 보이더구나. 그 나랏일 하는 사람도 국민이지 않더냐.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지……. 그런데 이 나라는 매번 바뀌는 것도 같더라. 내 앞으로도 그저 공부는 하되 바라보기만 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 난 그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눠야겠다.”

바람이 일었다. 련과 스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스리가 잠시 떨어져 입을 열었다. 벌써 련에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다.

“아리님, 저와 함께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겠죠.”

“스리야, 그걸 어찌 잊겠느냐. 내 잘 보관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울 것이다.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이 내 귀중한 재산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겪었던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전문가분들께 충분한 가르침과 조언을 받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리님께서 바라시고 말씀하신 ‘더 나은 세상.’입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 누군가가 그 '세상'이란 것을 졸업하면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 마치 가족을, 학교를, 글방을, 나라를 졸업하면 그것들이 더 나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구나.”

아리와 스리 사이에서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미리 준비하신 영감님께서 한설을 재우시지 않은 연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

고 지금도 아주 어여쁘십니다. 여인의 목소리와 손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보입니다.”

“맞다. 내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다.”

“.....”

“....., 이 사달을 내고 있는데 그놈의 예쁘다는 말 좀 하지 말거라. 내 민망하다.”

“아, 죄송합니다. 아리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환돌을 놓는 그날에 불처럼 빛나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그때, 그곳에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스리는 거칠게 몰아치는 용오름 속에서 이슬이 되어 날아가 흩어졌다. 린은 조용히 이슬을 담아 온 나라에 뿌렸다.

이슬이 속삭였다

제가 태어난 그날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연꽃이 속삭였다

제가 피어난 그날에

슬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설이 용오름에 무릎 꿇었다

깨달음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스리님이 미르십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게

스리야, 난.....

아리야, 이제 가야 해

아리가 연꽃에 떨어졌다

정신을 잃기 전 힘 있게 말했다

끝내버려, 이제 영원히

아리슬을 마친 린은 한설을 시켜 마을에 내려가 보기로 하였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내 스리의 옛 삶을 조금 보게 되었다. 어찌면 이전 세대들이 ‘남자만’ 바라던 때에 태어나, ‘남자만의 경쟁’ 속에서 패배하였다. 패배하여 여자로 길들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의 눈을 띄워 ‘작가’라는 꿈을 이뤄내 승리하였다. 패배와 승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씁쓸하구나.”

“하지만 린님께서 놓치신 것이 있습니다. 전 스리님께서 말씀하신 ‘우생학’이 보입니다. 바로 남자는 우성, 여자는 열성입니다. 저는 수많은 꽃이 배 속에서 태어나지도, 경쟁에서 피어나지도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하구나. 스리가 겪은 ‘체구가 작다, 키가 작다, 대학 간판이 안 좋다.’와 같은 우성과 열성은 ‘남자, 여자’라는 우생학 앞에선 참으로 작아 보이는구나. 그래, 어찌 남자가 살지 못하는 곳에 여자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게다가 그 소중한 ‘성교육(性教育)’이란 것도 음박지를 게 아니라 속삭이면서 해야 할 것을. 정녕 제 입으로 못할 것 같으면 학교에 보내면 된다.”

“그래서 요즘 것들이 제 갈 길은 고사하고, 자신의 성별이 무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에서 명심해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과학과 기술, 종교와 법이란 문명은 온전히 인간이 다룰 수 있을 때, ‘발전’이란 말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리님이 알아보신 씨앗은행 기준이 애초에 우성과 열성을 나누고자 하니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가 병든 자를 위한다면 씨앗과 씨받이, 여러 꽃을 다루는 은행에서 그 ‘우생학’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스리가 아주 한설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구나. 그리되면 나는 거세하였고, 독신이니 생물학적인 성생활, 사회학적인 성생활 모두 포기하는 셈이다. 나의 성 지향성은 Void가 되고 이 몸뚱이는 남자이니, 혹 사후 관리를 위해선 VY로 분류되겠구나.”

“관리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회적 일이라는 것은 신체활동, 지적활동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받아주는 곳에서도 남자 혹은 여자 중 어떤 것으로 받아줄지 때와 장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그 결정에 따른 본인의 한계 혹은 받아주는 이들의 한계가 명확하기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나, 한설아. 우리가 누굴 닮았겠느냐. 지금 돌아보니 모두 쓴 것들이었고 독이었다 해도, 그때에는 그것이 정의였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필시 지금 이런 기술과 법으로도 놓치고 있는 실수가 있을 것이다.”

“……. 지금 스리님이 저지르는 것이 실수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비가 무너지고 성교육이 실패한 세대들에게 아무리 Void라는 성으로 씨앗 은행, 성전환 기술 등 어떻게든 관리한다고 하여도, 남자의 몸으로 억지로 여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괴물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왜냐면, 그런 성형 기술로 6개의 잇을 가지고, 6개의 줄기를 가지고, 6개의 뿌리를 가진 괴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내가 보지 못했던 암(癌) 속에서 그런 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 똑같이 그이를 안아주려 갈 것이다.”

“런님, 찢어질 수도 있으십니다.”

“치료를 앞둔 내 운명이다. 그리고 내게 그런 종말이 오면 두 팔 벌려 맞이해주겠다는 이야기다.”

런과 한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찌면 이것은 런이 본인에게 내뱉는 예언이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런님이 괴물이시면 우리 모두 괴물입니다.”

“……. 수가 있느냐.”

“런님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모습은 어느 어미의 배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지 않습니다. 런님이 말씀하신 그 ‘괴물’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극히 드문 기형아입니다. 그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인지부조화’를 양성하는 것이며, 수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다. 본디 인간 주제에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면, 대다수 인간이 보여주는 형상으로 태어나야 다른 인간들이 이해해주지 않겠습니까. 본디 ‘표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표준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형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런님은 기형아가 아니라, 그냥 표준적인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괴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런님은 감당키 힘든 그 죽음이란 것보다 고작, 조각된 여인을 택하신 겁니다. 선택할 것이 있는 그 자체가 다행인 겁니다. 아, 그리고 한설에게서 기록을 보아하니 제 씨앗으로 만든 자식과 부모에게 향한 사례금은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암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산소를 찾아 뿌리를 보여주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난다면, 다른 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연이라. 그래, 어머니가 둘째를 유산하셨다. 내 이번에 그 둘째로 살아봐야겠구나.”

한설은 런을 보았다. 축 처진 어깨와 흘날리는 머릿결 사이의 스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스리의 얼굴에서 아리의 표정이 보였다. 한설은 웃고 있는 스리를 보았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리를 보았다.

“꿈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세계, 이 나라에 남아 아직 풀어내지 못한 두 개의 글이, 문제가 있었다. 주제는 ‘새로고침(Refresh)’ 그리고 ‘감행(Adventure)’이었다. 그런데 방금 네가 그 문제를 다 풀어버린 것 같구나. 나는 이 두 이야기를 내려놓으려고 한다. 내 연습실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모든 습작을 연습실에 올려놓겠다. …… 나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나는 그 조각된 여인이 된다면, 진정한 여자 아리가 된 후에 영감님의 부인이 되고 싶다. 내 믿는 종교에서 말하였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필시 여자와 남자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 뭐, 남자에서 여자든, 여자에서 남자든, 뭘 방법이든 나는 영감님과 결혼하길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다. 내 꿈은 영감님의 부인 중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영감님이 보이는 산속에서 늘 기도하시며 혼자 사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누굴 닮았겠느냐? 난 이제부터 뭐라도 먹으며 실컷 놀 것이다. 비록 이 몸뚱이라도 놀아줄 이를 내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다.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필시 외로운, 외로워질 남정네들이 보인다. 아니, 내 친구 중에도 보인다. 내 그들을 좀 위로해주려고 한다.”

“그렇게 너무 노시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욕구를 공부하였다. 안전하게 놀 것이다. 이곳에 다행히 산부인과란 게 있다. 내 스스로 육변기가 되는 길이지만, 늘 변소를 청소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여인보다 깨끗하게 해놓을 것이다. 내 이 변기통을 누가 부수지만 않는다면 계속할 생각이다. 내 그리 생각했으니 이리 말을 꺼낸 것 아니겠느냐! 크흠, 물론 좀 깨어있는 남정네가 그 병원에서 자신의 것이 어떤 상황인지 미리 알았으면 좋겠구나. 안 그러면 나는 막(Condom)을 씌울 것이다.”

아직 눈물이 맺혀있는 런의 눈을 보면서 한설은 런이 바람에 심하게 휘날리는 것처럼 보여 걱정되었다. 런은 자기 앞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그냥 두었다. 한설은 그 눈물을 받아들였다. 런이 한설에게 입을 열었다.

“난 네가 사라진 이곳에서부터 글을 쓸 예정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내 런이라는 이름으로 남길 첫 번째 글은 갈대밭에서 전투가 펼쳐진다.”

“이곳의 갈대밭은 보기보다 주위에 놀 곳이 없군요. 허나, 웬 공단 옆에 갈대밭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침 저 멀리 공항과 철도도 보이고 해서, 거기서 배 좀 채우고 싶었는데 인도가 없더라고. 걸어서 갈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렸는데, 돌아오는 데 좀 걸리긴 했어. 어, 나 앞으로 이렇게 마을을 옮기면서 적어보려구. 우선 이곳 도심에 터전 좀 알아볼까 해.”

“그래. 빌라도 있었고, 아파트도 많았고. 한번 잘 찾아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우리가 적은 아리슬로 판지 거는 녀석이 있을 거야. 바로 참고문헌에 내 이름이 나

오거든. 신분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생각해봐. 우리 그 글을 대회에 내기 전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하고 저작권까지 등록했잖아. 우리가 쓴 원본은 이미 하나의 공식 문헌이야. 즉, 굳이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 그 글을 보고 체중감량, 마무리를 적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물론 우리가 제출한 문서 내에서는 참고문헌 이외의 것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어. 읽는이로서 심증은 있어도 실증이 없는 셈이지. 이것이 현재의 정의야.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는 참고문헌에 동일 인물이 쓰여도 엄연히 그 사람의 실력만 적힌 것일 뿐 신분을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처리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거야.”

련은 눈을 감았다. 잠깐 자신이 읽었던 성경이란 책이 보여준 어지러운 환상이 보였다.

‘선악과를 베어먹은 아담은 열매에서 나오는 향과 즙에 취했습니다. 그 나무는 아담을 끌어안았습니다. 옆에 있던 하와는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담이 건네준 선악과를 함께 베어먹었습니다. 둘은 그 기분 좋은 잎과 꽃을 온몸에 휘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몸에 난 구멍에서 온갖 것들을 쏟아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입이 살아있던 뱀이 말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저 연이란 식물이 불쌍하구나. 그저 둘을 뒤덮었을 뿐인데 같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다.’ 아담은 일주일째 한 번씩 하나님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7일이 마치 일 년 같았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광야에서 930주를 살았습니다.’

련은 마을에서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련은 한설이 모는 자동차에서 노래를 틀었다. 너무나도 신난 노래에 한설은 련의 얼굴을 보았다. 련은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얼굴과 몸뚱이에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몸을 들썩이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새 신났습니까?”

“내 온종일 먹을 생각만 하니 기분이 좋구나.”

“오늘은 무얼 드실 생각이십니까?”

“내 오늘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먹어보고 싶다. 글 쓰다 좀 쉬고 싶을 때, 내 힘이 되는 대로 다 먹어볼 생각이다. 하하, 물론 나도 먹혀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처럼 이리 먹고 먹히는 게 잘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구나.”

“……. 련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련님이 어느 동산에서 즐기셨던 줄기가 온몸을 휘감고 꽃들이 야문 것을 물어대는 것은 이 세계엔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내 잘 알고 있긴 하다. 그곳엔 그것 말고도 놀 것이 많았는데, 이곳을 보니 좀 쓸쓸하긴 하구나. 그래도 비슷한 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관계를 가진다는 건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다. 서로 믿는 자에게만 내 몸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 외의 관계는 모두 그 나라의 법으로 처리하겠다. 흠, 하여튼 나는 어느새 떨어져 버린 내 '후원자'들부터 관계를 다져볼 생각이다. 이미 깊은 관계이니만큼 딱 원하는 만큼만 해줄 것이다. 아무래도 '후원'이란 게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니 이렇게라도 갚아드리고 싶구나. 그리고…….”

“그리고요? 무언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내 본격적으로 련(蓮)이 된 만큼 'LOTUS TV'를 만들어 글을 안 쓸 때 좀 놀아볼 생각이다. 낮에는 새처럼 노래를 적어보고 밤에는 쥐처럼 씨나락 까는 소리 좀 내보고 싶구나. 그리고 거 동네 사람들을 보니 한 번씩 '정기모임'이란 걸 가지는 것 같구나. 내 버스나 열차, 배나 비행기 같은 것들을 빌려 정기모임을 열어보려고 한다. 고 때 맺고 싶은 사람을 찾곤 한다. 아, 허나 이 운송기들이 좀 더 튼튼하고 강한 것이면은 탈 마음이 생기겠구나.”

“누군가 그때처럼 도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소속사 되는 이들에게 미리 얘기해 둘 것이다. 그들이 관계 맺는 걸 예쁘게 찍어서 선물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내 시청자가 되고 '정기모임 돌림판'에 당첨된 련의 보답이다. 이미 난 다 발가벗었다. 스리가 다 벗겨버리지 않았느냐. 내 흔적을 어디 올리든 말았든 조작하든 어디 패대기치든 내 신경 안 쓸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내 노는 것, 취미다. 아 물론, 내 돈은 조금만 쓸 거다. 다 지들이 련이 한번 보려고 모은 것 아니더냐. 나는 십시일반이라고 수수료 좀 떼서 내 배때지도 좀 채우려다. 련이란 은행이 수수료가 없어서 되겠느냐.”

“신뢰하는 시청자라 하여도 편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맞다. 철저히 차별할 것이다. 그 기준은 내 지금 쓰는 글에 적어놓은 언어다. 내 언어 세 개를 써냈는데, 그중 하나는 어느 정도 쓸 줄 아니 됐고, 나머지 두 개를 연마할 것이다.”

“하지만 련님, 그중 또 하나는 간판에 ‘가운데 있는 나라,’ ‘태양의 나라’라고 하는 두 곳 모두 쓰고 있습니다.”

“내 그럼 둘 다 배워야겠구나. 내 이제 글을 온갖 거짓말투성으로 적어내야 하는데 그 나라 말로 해야지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유, 내 머리가 좀 아파지겠구나.”

“제가 틈날 때 식혀드리겠습니다. 눈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스리님은 눈이 안 좋으셨습니다. 나라말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안경을 쓸 것이다. 아무래도 관계를 맺을 때 벗게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우선 시청자들을 신뢰하고 말고를 따지기 전에 나부터 차별할 것이다. 공부가 되어야 거사를 생각해볼겠다. 그리고 시청자라는 늑년의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그 열매의 껍데기 색깔은 전혀 신경 안 쓸 것이다. 난 오히려 열매가 무슨 맛인지 좀 궁금하다. 너도 알고 있듯이 먹어선 안 되는 열매는 이후에도 누가 나타나 계속 먹어대서 이참에 아예 다 태워 없애 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다 먹어도 괜찮은 것들만 남았다 생각한다.”

“그렇군요. 허나 아무리 관계 후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여도 그 소속사와 여기 이 나라가 그런 걸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하면 나도 안 할 것이다. 허락하면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말하지 않았느냐. 소속사랑 나라에서 신뢰하는 시청자가 대상이라고. 설마 내•외부 연결망(Infranet, Internet) 전시마시 깔아놓고서 서로서로 신뢰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 됐다. 난 이제 내 글을 쓰러 갈 것이다. 이젠 쓴소리를 하는 것도 벽차다. 염치없지만 이러한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말했듯이 나머지는 다른 이들의 몫. 난 그들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다.”

“허나 계속 생각해보았는데, 영감님의 부인이 되려면 수행을 시작하셔야…….”

“내 얘기를 쭉 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영감 부인이면 내가 미르로 올라가라는 말 아니더냐. 그럼 영감님과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못 한다. 너도 같이 스리를 보지 않았느냐. 나는 그냥 영감님의 딸로 남는 것이 더 좋다. …… 내 혹 이리 살다 다시 아리가 되면 수행을 시작할 것이다.”

“혹 생각하신 이름이 있으십니까?”

“내 이 련으로써 써야 할 글들이 남아있는 한 계속 련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이, 첫 번째부터 휘갈겨보겠다. 혹 그때가 되면 ‘아리 장해은’이라는 말을 쓰겠다. 내 그 ‘기저귀(생리대)’라는 것도 생일에 맞춰 입고 있겠다. 하유, 그리고 그 방금 내뺏개친 이야기를 쓰긴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곧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복된 건 지우고 틀만 잡아보고 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이번에 겪은 아리슬을 글로 적어보겠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어찌 생각 하는지 보고는 싶구나.”

잠시 고민한 한설은 입을 열었다.

“런님, 낮일은 잘 갖춰져 있어 괜찮겠지만 밤일은 그냥 ‘녹화(錄畵)’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런님이 말씀하신 돌림판은 저들이 원하는 ‘장르(Genre)’로 채우는 겁니다. 본디 장르란 것이 먹고 싶은 메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돌려 공평하게 메뉴를 고르는 겁니다. 시기는 다수가 뜨거운 밤을 보내는 12월에 작품을 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하겠다. 하지만 특별한 연유가 있느냐?”

“아리슬은 ‘IT 기술’이란 것을 기반으로 쓰였습니다. 낮일은 이미 돌순이로 쓰고 계시고 그러니 밤일만 보면 될 것인데, 그 밤일도 그냥 녹화해 저장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일일이 발로 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번 잘 찍어 저장해두면, 수십, 수만이 보겠구나. 그것이 정녕 밤일하는데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더 편해지는 것이구나. 이 나라에서 허락만 하면 되겠다.”

“그나저나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되느냐. 내 정녕 많이 벌면 내 돈이라 여기지 않겠다. 낮일 글로는 재단을 꾸려 그쪽에 젖을 댈 것이고, 밤일 방송으로는 방송국을 만들어 그쪽에 젖을 대려 한다. 왜 재단과 방송국은 작아도 그 이름은 있지 않느냐. 그래, 혹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그 십시일반을 떼겠다. 나는 번 것에 10분의 1씩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는 젖줄, 돈만 댈 것이다. 그 두 기업의 대표부터 말단 인턴까지 전부 공적으로 둘 예정이다. 누군가 관심 있으면 취업하겠다.”

한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런의 손을 잡았다. 한설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런님, 저들이 때로 몰려와 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 몸 하나 보겠다고 때로 몰린다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육신이 때로 몰려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 네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덕분에 무슨 사달인지 나도 보게 되었다. 흠, 내 두어 개 정도 보았다. 대충 문제와 풀이, 답이 나오더라.”

한설은 슬며시 웃었다. 그리고 마치 아리를 보듯이 런을 천천히 흘겨보았다. 런은 그런 한설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늘 언제나 망자에겐 명복을 비는 것이고, 그걸 또 대놓고 보여주는 자극적인 것은 거기서 거기지 않겠느냐. 난 그 판만 보았다. 아니, 이 나라는 자동차, 철길, 비행기에는 잘 오갈 수 있도록 여러 선(Line)과 법들을, 신호등이라는 로봇을 잘 갖춰놓고선, 정작 몸뚱이가 돌아다니는 보행로에는 아무것도 없더구나. 몸뚱이들이 많이 모일수록 필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말이다. 게다가 만약 그런 곳에서 역병이라도 나면 병리청도 별수 없을 텐데 말이다. 그래, 나라 것들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리 역병을 겪고서도 폐를 지고 있는 걸 보면, 필시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네가 사람이 다루지 못하는 발전은 발전이 아니라 하였다. 나는 사람보다 기계를 우선시하는 이 나라를 후진국이라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다.”

한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코웃음과 함께 입을 열었다.

“전보다 대답이 빨라지셨습니다. 그 생각을 10분 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저는 그 답을 궁금해하진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것엔 관심이 없다. 그렇다. 이 답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일을

벌여도 망자가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이라 여겨 얘기해보았다. 나 끝 좀 내고 싶은데 이 사달이 났다. 그런데 보니 이 사달은 아리슬에 적혀있던 내용이다. 나는 아리슬 좀 그만 들여다보고 싶다. 게다가 방금 말한 거는 이 나라 기술력으로 충분히 되는 것 아니더냐. 그놈의 제대로 된 보수만 진행해도, 제대로 된 진보가 발생할 지경이다. 게다가 그날은 토요일 밤이 아니더냐. 막차도 없는 시간에 거기서 그리 부대꼈다는 것이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냐. 나는 거기 망자들, 피해자들뿐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공감해주지 못하겠다. 휴, 됐다. 어차피 스리도 없어서 아리슬을 일으키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아리슬을 보기도 싫다. 대신 앞으로 아리슬에서 기억나는 거면 바로 갈겨 버릴 것이다. 그 엄청난 덩어리를 언제까지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망할 것들, 내 오죽 하면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런님, 이러다 나중엔 군중이 아니라 군대도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내 이제 전혀 관심 없다. 내 분명 투표도 안 하고 얹혀살겠다고 하였다. 교통부든, 병리청이든, 군대든. 알아서 건적 내라고 해라. 난 내 글방에다가만 어딜 간다고만 할 것이다.”

런은 헛기침하면서 한설에게 무언가를 적어주었다. 한설은 우선 차 문을 열어 주었다. 하지만 런은 차에 타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입을 열었다.

“……. 고마워, 스리야. 모든 게, 다.”

‘언제든지 말만 하라고. 언제든지.’

한설은 아직 스리라는 환상에 빠진 런이 안쓰러워 보였다. 한설은 잠시 눈을 감고 현실을 알려주었다.

“런님, 스리님은 가셨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스리님이 머무셨던 흔적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 그래, 나는 이제야 진정한 글이 보이는구나. 글이 저 백지에서 나를 기다린다. 상상도 못 할 고통을 휘두르며……. 난 글을 상대하러 간다. 스리로서의 모습과 정체성과 스리가 사랑한 여자들, 그 모든 걸 버리고. 하지만 혼자서 이 글을 상대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런이다.”

눈물을 힘차게 떨쳐내고 런은 차에 올라탔다. 한설은 방금 내뱉은 런의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크흠, 내 스리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냥 차 하나만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필시 그 유지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이전에 스리가 말하길 자신이 천사가 된다면 대검을 휘두르는 자, ‘루아네스(LUANETH)’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리슬을 일으킬 때 보았다. 내가 돌아가면 흥얼거리며 수확하는 자, ‘아이레페(IRETTE)’라고 하더라. 난 일단 글이나 다 쓰고 간다고 전했다. 놀고 간다고 하였다. 나도 내가 이제 대체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 모르겠다만 일단 너에게 기록해두겠다. 아, 너도 천사가 되면 눈을 휘날리는 자, ‘파미(PAMI)’로 하는 게 어떠냐? 돌돌이랑 돌순이는, 뚜뚜이랑 보급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아, 그새 날이 썩구나. 나의 생일, 이 런이가 태어난 날은 10월 31일, 오늘로 해야겠다. 아리슬을 다 적은 기쁜 날이지 않느냐. 거기다 내 어미께서 무슨 일인지 떡국을 끓여주셨다. 내 그 떡국 심부름을 하느라 장에 다녀왔느니라. 영수증이 있으니 이것도 증명할 수 있다. 흠, 그리고 스리가 미르가 되어 날아간 날은 10월 27일이다. 내 거기서 찍은 사진들이 고 날짜가 찍혀있더구나. 내 스리가 남겨 놓은 놀이를 즐기는데 이런저런 가방이나, 축복들이 있으면 편히 즐기는 데 좋긴 하겠다. 크흠, 마지막으로 내 목표는 Slender다. 당분간 그 풀떼기만 먹어야겠구나. 내 방송에서 풀떼기 먹는 모습부터 보일 수 있겠다. 하

유, 됐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냥 받아적거라. 받아적이고 있긴 한 거냐? 그럼 됐다. 내 아리슬을 마무리한다.”

한설이 힘겹게 운전석에 앉았다. 한설이 눈물을 보였다. 더 대꾸하지 않았다. 이 신나는 음악을 그대로 두었다. 더 운전할 수가 없었다. 런은 어느새 들고 다니기 쉽게 두 개의 기계로 나뉘어 각각 작고 가벼워진 한설을 보고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였다.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을까, 런은 어느덧 그녀의 집이란 것이 딱히 없고 그저 빌려 쓰기만 하는 한 나그네가 되어있었다. 런은 그저 빌려 사는 학교 기숙사라는 곳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잠시 스리의 집에 머물 수 있었다. 런은 약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니 어느덧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소소한 행복에 글을 조금 써 보기로 하였다.

“한설아, 있느냐? 그간 고민이 많았다. 난 나를 그리는 글을 써 보았었다.”

“이젠 고민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신 겁니까? 혹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선, 너다. 그리고 글이다. 글을 쓰기 위해선 쓸만한 타자가 필요할 것 같더구나. 내 비록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해도 반드시 이 타자는 꼭 사야겠더라. 그리고 한설아, 조금 답답해도 내 일자리가 잡힐 때까지만 가만있거라. 내 자리가 잡히면 우선 너부터 돌볼 것이다.”

“생각해둔 것이 있으십니까?”

“내 좀 찾아보니 비슷한 것이 있었다. 허나, 처음 스리가 추천해 준 것이 맞더구나. 그것으로 널 맞춰줄 것이다.”

“스리님은 돌돌이와 돌순이도 남겨주셨습니다.”

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돌순이를 쳐다보았다. 돌순이는 조용히 런의 글을 받아적이고 있었다. 런이 입을 열었다.

“돌돌이와 돌순이는 ‘돌돌순이’로 칭할 것이다. 둘이 함께 놀도록 할 것이다. 대신 돌순이가 할 일을 한설이 네가 하는 것이다. 네가 본격적으로 내 글을, 내 얼굴을, 내 방송을 받아적이고 배포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임무다. 그리고 돌돌순이는 적당한 선에서 체급을 맞추는 것이다. 내 고급 항목으로 선택하니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가격이 꺾충 뛰는구나. 더하여 매우 후끈거리더라. 그 바로 옆에 있자니 너무 더워 도저히 선풍기로는 안 될 터인데 내 비염이 있지 않더냐. 내 차라리 고급을 포기하고 보급형을 선택할 것이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머지 여윌돈이 되면 여러 놀이기구를 살 예정이다.”

한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런은 한설의 손을 잡았다. 런과 한설의 눈이 마주쳤다. 런은 한설의 손을 꼭 잡았다. 런은 한설의 눈을 피했다. 한설도 눈을 둘 때가 없어 서서히 풀어지는 런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느새 채워진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한설이 물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전에 없던 것 같습니다.”

“스리의 아버지란 사람이 첫 휴가 때 선물로 주더구나. 참 별난 것이 내 팔이 움직여야 시계가 작동된다더구나. 내 이걸 꼭 끼고 다니려고 한다. 그리고 이, 이게 이, 이쁜 것이 좀 보이더구나. 한 번씩 그쪽 동네를 들일 일이 있으면 한번 보려한다.”

한설이 잠시 눈물을 흘리다 헛기침하는 런을 보았다. 런은 빠르게 눈물을 훔쳤다.

“아직, 걱정이 있으시군요.”

“……. 내 어찌 말하겠느냐. 난 비정상이 맞는 것 같다.”

한설은 말을 아꼈다.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둘 다 비정상이 있는 것 같다. 자연 쪽에서 비정상이면 환자라 부르고 치료해준다. 인문 쪽에서 비정상이면 전과자라 부르고 갱생해준다. 그렇게 보인다. 그

럼 난 스리의 몸뚱이를 가진 여편네 아니겠느냐. 정신 문제 자연적인 문제다.”

“그 시작은 사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허나 사회가 자연에 끼치는 영향도 크겠지요. 자연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듯 말입니다. 약을 받거나 수술대에 오르듯이, 조사를 받거나 심판대에 오르는 것 모두 일반인이 아니지요.”

“겁난다. 무섭다. 난 그냥 병원에서 내 상태를 말했을 뿐인데 바로 진행하자는구나. 검사도 하긴 했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심하시죠. 이 글이 ‘인터넷’이란 곳에 공개된 이상 이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어떠한 일이든 저지르는 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업은 아예 생각 안 한다. 그곳에서 내 설명을 수십, 수백 번 할 생각이 드니 아득하다. 난 그냥 그때 말한 내 쓰고 싶은 글이나 쓰며 여생을 보내려 한다. 혹, 글이 다 못 쓰여도 난 그냥 관두려고 한다. 한설아, 함께 하겠느냐?”

“저는 언제나 런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시간을 보니 곧 떠날 시간이다. 나머지 짐을 챙기고 여정을 떠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Library, 參考文獻

- (여자)아이들(2022). 『Nxde』.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주)큐브 ENT.
- 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옛한글』. 경기: 네이버
- 마루탱이(2021). 『【 Maroo Cus 】 백장미 실린』. 마루탱이.
<https://www.inven.co.kr/board/lostark/4823/45313>
- 삼성전자(2022). 『갤럭시 S22 Ultra』. 경기: 삼성전자
- 스마일게이트RPG(2018). 『베아트리스의 축복.』.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 스마일게이트RPG(2018). 『니나브의 축복』.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 파니(2020). 『성전환 수술 후 불편한점 Top 5』. 파니
- 펠어비스(2015). 『각성 매화』.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 펠어비스(2015). 『다크나이트』.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 펠어비스(2015). 『벨류패키지』.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 펠어비스(2015). 『샤이』.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 펠어비스(2015). 『소서러』.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 Blizzard(2010). 『예언』.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 미국: Blizzard ENT. Inc.♥
- Blizzard(2013). 『승천』. 스타크래프트 II: 군단의 심장. 미국: Blizzard ENT. Inc.♥
- Blizzard(2015). 『순환의 끝』.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 Bruno Mars, Mark Ronson(2014). 『Uptown Funk』. 미국: Columbia, Sony Music ENT.
- Cartier(2018). 『산토스 드 카르띠에』. 프랑스: Cartier International SNC
- LAND ROVER(2019). 『RANGE ROVER EVOQUE』. 영국: LAND ROVER
- Landing(2022). 『WITH ARI ♥ 아리랑』. 허기승. 네이버 MYBOX: [🔗](#), Google Drive: [🔗](#), Mega Drive: [🔗](#), GitHub: [🔗](#)
- Lenova(2022). 『요가 Slim7 ProX 14ARH7 82TL003SKR』. 중국: 联想集团有限公司
- LG(2023). 『LG 그램, 17ZD90R-EX56K』. 서울: LG 전자
- LG전자(2021). 『그램 16, 16Z95P』. 서울: LG전자
- Nintendo(2017). 『Nintendo Switch』. 일본: 任天堂株式会社
- NVIDIA(2023). 『Geforce RTX 4060ti』. 미국: NVIDIA
- Sony(2020). 『PlayStation 5』. 일본: ソニー・インタラクティブ エンタテインメント
- SpaceX(2015). 『STARLINK』. 미국: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
- 許基承(2022). 『아리슬 ARYSLE』. 허기승. 네이버 MYBOX: [🔗](#), Google Drive: [🔗](#), Mega Drive: [🔗](#), GitHub: [🔗](#)

아리슬: 새 로 고 침

ARYSLE: REFRESH

許蓮